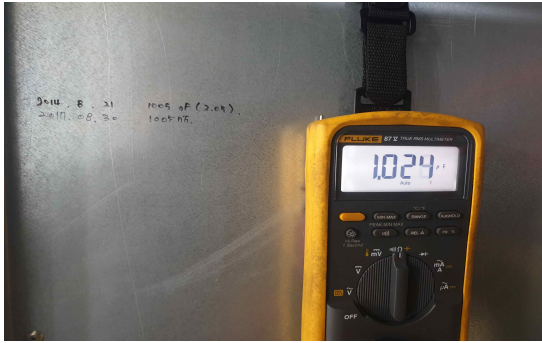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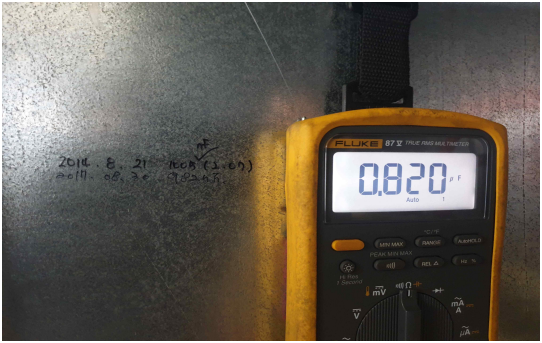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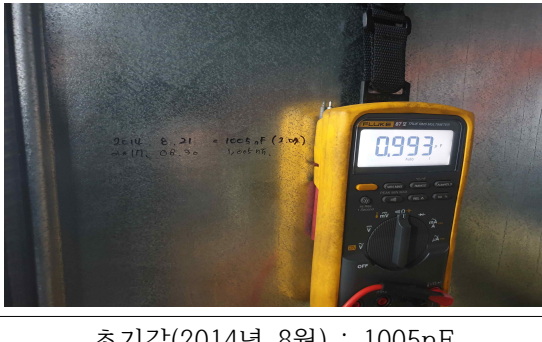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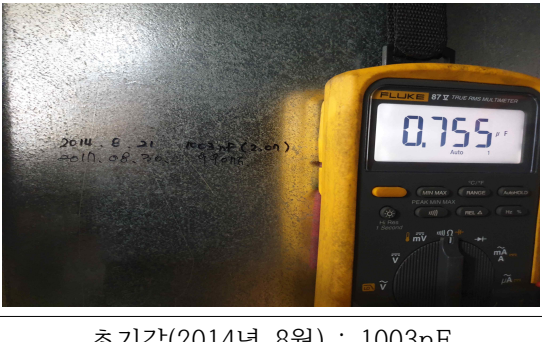


## 암사정수장 오존발생기 방전관,고압휴즈 간이점검(C값측정)결과

1. 점검일자 : 2019년 04월 15일
2. 점검방법 : 오존발생기 각 호기별 현재CAPACITOR값(이하 C값)을 측정하여 초기 오존발생기 설치 당시의 C값과 비교하여 방전관 및 고압휴즈의 손상여부를 간이적으로 판단함.
3. 점검결과

1호기	2호기
	
초기값(2014년 8월) : 1005nF	초기값(2014년 8월) : 1005nF
현재측정값(2019년 4월) : 1024nF	현재측정값(2019년 4월) : 820nF
3호기	4호기
	
초기값(2014년 8월) : 1005nF	초기값(2014년 8월) : 1003nF
현재측정값(2019년 4월) : 993nF	현재측정값(2019년 4월) : 755nF

### 4. 결론

- C값을 측정하여 초기값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이 만큼 방전관이나 휴즈의 손상이 예상되고, 만약 상승한 경우 방전관 내부에 스케일 등의 이물질이 심하게 생성된 경우임.
- 오존발생기 1개홀당 방전관 4개와 고압휴즈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, 방전관 1개당 C값은 대략 2.1nF임.(1개홀당 C값은 대략 8.4nF)
- 1호기의 경우 초기값보다 19nF정도 상승된 것은 내부에 스케일 등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전관과 고압휴즈의 손상여부는 실제 분해하여 점검해야 함.
- 2호기 185nF차이로 약22개정도, 3호기 12nF차이로 약1~2개정도, 4호기 248nF차이로 약30개정도로 고압휴즈는 단락된 것으로 예상되고 방전관의 경우 이보다는 적게 손상된 것으로 예상됨.